

‘강진 맛집’ 육성 지역경제 살린다

군 ‘숨은 맛집’ 15곳 선정 맛 지도·블로그 홍보 등 혜택 맞춤형 컨설팅 통해 경쟁력 강화

강진군이 ‘강진 맛집’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맛집 탐방객 몰이에 나선다.

27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 맛집 육성사업은 음식 맛, 상차림, 경영진단, 위생환경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음식점 수준을 끌어올려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25개 맛집을 선정했다.

올해는 지난 2월 군민과 관광객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숨은 맛집 선호도 설문조사’로 추천된 41개 음식점 중 15개소를 선정했다.

맛집으로 지정되면 맛집 지정증 교부와 표지판이 부착된다.

입식 식탁 설치, 주방시설 개선사업 등 보조사업 우선 대상으로 선정된다.

맛 지도 및 블로그 제작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암행평가단 운영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진행해 맛집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2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5차 강진 맛집 육성 컨설팅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컨설팅 사업추진 내용과 일정 등 컨설팅 진행과정을 공유하고, 음식점 영업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코로나19로 관광객 감소 등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음식에 경쟁력을 높여 이러한 시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이승욱 강진군수(오른쪽 두번째)가 지난해 말 열린 강진맛집 육성 컨설팅 시식회에서 음식의 맛을 보고 있다. <강진군 제공>

담양군-경북 울진군 상생발전 교류 협약



담양군과 경북 울진군이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담양군은 지난 26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양 지자체단체 간 우호 교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우호 교류 협약 체결은 전남·경북 상생협력회의의 부대 행사로 개최돼 동·서간 화합과 교류의 기대감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특히 두 지자체는 각각 산림, 바다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지녔다는 공통점을 지녀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교류 영역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여건 성숙 시 자매결연 협약 체결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동·서 협력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전남과 경북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고령화 문제 등 심각한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양=노영환 기자 nyc@kwangju.co.kr

장성에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꿈꾸는 마루’ 들어선다

전남도 공모사업에 선정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해 조성

장성군에 청소년들의 문화·놀이·여가·자치활동을 지원할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선다.

장성군은 전남도가 주관한 청소년 자유공간 ‘꿈꾸는 마루’ 공모사업에 선정돼 청소년수련관 2층을 리모델링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리모델링에는 장성군이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도비 1억원 등이 투입된다.

앞서 장성군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해 실시한 청소년 욕구 조사와 정책제안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을 위한 전용 휴식공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3월 사업에 응모했다.

장성군 평생교육센터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꼼꼼한 계획서와 현장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사업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 중인 장성군은 올

해 군비 10억원을 투입해 청소년의 성장·보호를 위한 시설 확충과 경제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지역의 꿈나무들이 건전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쾌적한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미래 장성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나주시 지역화폐 10% 할인 6월말까지 연장키로



나주시가 나주시사랑상품권 지역화폐 할인 판매 기간을 연장했다.

나주시는 지역 자본의 역외유출을 막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주시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를 오는 6월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상품권은 1인당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다.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와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광주은행 등 관내 지정 금융기관 54개소에서 취급한다.

구입한 상품권은 음식점·마트·주유소·약국·병원 등 나주시지역 지정 가맹점 3071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나주시는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종이(지류)형 상품권의 단점을 보완한 전자형 ‘나주시사랑카드’ 상품권도 발행하고 있다.

스마트폰에 전용 앱(App) ‘CHAK(착)’을 설치하면 별도 회비 없이 6월까지 10%할인된 금액으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지역농협 38곳과 우체국 17곳에서 카드발급과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흥군, ‘귀농·귀촌 동네작가’ 선정... 도시민 유치사업 주목

읍면별 10명 선정 위촉식

장흥군이 ‘귀농·귀촌 동네작가’ 선정으로 도시민 유치 사업을 펼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귀농·귀촌 동네작가 등 13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사진>

군은 귀농·귀촌한 마을주민을 동네작가로 선정해 관련 지역 정보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도시민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귀농귀촌 동네작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부터 공개 모집을 통해 읍면별로 균등하게 대상자 10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농촌생활 및 영농현장, 귀농·귀촌 성공, 정착 사례, 마을 소개 등 다양한 정보를 개인 SNS, 블로그 등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해 도시민들과 소통하게 된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농촌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



화로 도시민 유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라며 “동네작가들이 도시민들과 활발히 소통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은 지난달말 기준 도시민 427가구를 유지했으며, 도시민지원센터를 통해 종합상담에서 정착,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화순군, 벼 재배농가 농약방제 도우미 지원

화순군이 고령인 등 농업 활동이 어려운 벼 재배농가에 농약방제 일손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

화순군은 농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8000만원을 들여 벼농사 주요 병해충 발생 시기에 맞춰 농약방제 작업을 대신해 주는 농약방제 일손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총 400ha의 벼 재배면적에 사업을 추진하며 7-9월 사이에 2회 병해충 방제작업을 지원한다.

사업 대상 농가는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홀로 농업활동을 하는 여성 등 벼 일손재배 농가며, 6월 중순까지 마을 이장을 경유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병해충 방제에 드는 약제는 사업 대상 농가에서 부담해야 한다.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병해충 방제작업을 지원해 해당 농가의 경영비를 줄여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며 “노동력과 비용 문제로 병해충 방제 등 농업 활동을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